



## 개통 10주년 맞이한 마창대교와 따뜻한 사람들



경남 창원을 가다 보면 남해안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해상대교가 보인다.  
2008년 개통된 남해안 시대의 상징, 마창대교다.  
"내 고향 남쪽 바다.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"로 시작되는 가고파의 고장, 옛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길이 1.7km의 다리다.  
이 다리는 마산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수면에서부터 64m 높이로 지어졌다.  
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도로 안정성에 적합한 S자형 사장교 형식이다.



### 편리하고 경제적인 마창대교

개통 10년을 맞이한 마창대교는 기존 우회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약 7km, 30분이 단축됐다.  
이로 인해 경남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.  
특히 진주, 고성, 통영, 거제 등 경남 서남부권에서 창원, 김해, 부산까지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다.  
명실공히 남해고속도로의 대체도로로 자리매김했다.  
개통 당시 하루 1만여 대에 머물던 통행량이 현재 4만 대로 대폭 늘었다.

### 사계절 아름다운 해상대교

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.  
마창대교는 주탑 위에 사계절 이벤트 야간조명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.  
이 지역 명물인 마창대교의 밤 풍경은 마산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낭만과 행복감에 젖게 한다.

### 사회에 봉사하는 '대교 사람들'

마창대교는 지역 간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.  
매년 대교 인근 초·중·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비롯해 어르신 효도잔치,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을 연다.  
이와 함께 농촌 일손돕기,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기부행사,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. ♡

